

격려사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제2권 발간을 축하합니다.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연구자와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법안스님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 불교사는 호국애민의 정신이 면면히 이어진 민족의 역사로서, 이러한 호국불교의 전통은 국가의 위난 시기에 전국의 승장과 의승군이 승려 신분으로 월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오직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봉기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호국불교는 치열한 자기반성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 역사와 민족에 대한 종교의 책임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종교와 학문이라는 순수한 관점에서의 연구는 미흡하고 오히려 정치적 의도에 따라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아직까지 그 정의와 위상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호국불교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폭넓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2011년부터 호국불교의 역사적 실체와 주요 주제들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2012년에 다양한 호국불교 사례들을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제1권을 펴내어 많은 대중과 그 의미를 나누고 공감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산대사의 국가제향을 복원하는 학술적 의미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제2권은 조선시기 전란사에서 차지하는 의승군의 위상과 서산대사 국가제향 복원의 의미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불교의 역할·불교의 사회경제적 실태·승역의 추이와 그 원인·의승군과 사원경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전란 이후 조선후기 산성 수축과 수비 등 중요 임무를 수행했던 승군과 승역 활동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제2권에 실린 논문들은 조선 후기 호국불교의 실체에 대해 풍부한 이해와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논문집 발간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찾아 우리 종단과 불교

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국불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신 대흥사 주지 범각스님의 원력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호국불교 연구를 후원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심과 지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기2557(2013)년 12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